

우리 근대문학의 資料整理가 시급하다

종합적인 「文學博物館」 세웠으면

권영민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서울대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 문학박사(서울대). 저서 「소설의 시대를 위하여」 「해방 40년의 문학」 「한국근대문학과 시대정신」 「한국현대문학사연표 I·II」 외. 1948년생.



일부 잡지영인본 중에는 결본인체 무성의하게 만들어진 것이 적지 않다.

문학연구의 최대장애는 자료미비

우리 근대문학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문학사적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학연구의 대상이 되는 많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문학 자료의 정리는 문학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언론매체와 출판사의 모든 간행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에서부터 거기에 발표된 작품의 발굴과 그 書誌적 정리작업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작업과정은 문학연구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문학 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근대문학은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일제의 침략에 의해 온갖 정신적 박해의 대상이 되어왔고, 혹독한 탄압과 검열에 의해 민족문학으로서의 성장을 방해당하여 왔다. 일제 총독부의 강압에 의해 압수된 문학사적도 적지 않고, 신문·잡지에서 삭제된 작품도 상당수에 이른다. 게다가 국어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문학의 형태를 제대로 보존하기도 힘든 곤욕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새로운 민족문화의 건설이 요구되면서 민족문학에 대한 각성과 인식이 다시 자리잡게 되었으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자료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한 채 소실되어 버린 것도 우

리 문학의 커다란 상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대문학은 불과 백년의 역사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의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활약했던 문인들의 분포와 창작활동의 범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것도 많고, 작품사적인 규모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근대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이 가능해진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대문학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는 분류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소설·희곡·비평에 대한 문학사적 정리 작업이지만, 연구의 최대 장애는 자료의 미비와 불충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물론 문학자료의 기초 정리작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목록의 색인 작성은 잡지의 기사를 목록화한 중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한국잡지개관 호별목록집 I·II」와 국회도서관의 「국내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문학연구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전의 경우에는 잡지의 견본을 찾지 못한 것도 많아서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신문의 경우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자체 사업으로 기사색인목록을 만들어 놓았을 뿐, 대부분의 폐간 신문은 이러한 작업에 손을 댈 수 없고, 신문 자체의 보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작품사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문학작품 자료연표는 필자가 최근에 펴낸 「한국현대문학사연표 I·II」가 가장 방대한 것이지만, 문학인 개인별 작품활동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작품年譜의 정확한 작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落秩本의 보완도 급선무

그러나 이러한 과제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소실되어버린 자료를 발굴 복원하고, 현재 보존되어 있는 자료를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는 일이다. 근대문학의 전개과정 가운데 문학활동의 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신문의 경우를 보면, 몇몇 규모가 큰 신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낙진된 것이 많아 그 기사내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낙진본의 보완은 앞으로 더욱 곤란한 일이 될 것

으면 안된다. 문헌자료의 보관은 개인 소장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공공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보존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료 자체의 열람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영인본을 제작하여 열람시키고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그럴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궁여지책을 쓰게 되는 것이다. 자료 원본을 직접 열람시킬 경우에는 자료의 파손을 막을 수 없음을 당연한 일이다.

우리 근대문학 자료의 정리 보완과 그 보존 문제는 이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과제이긴 하지만, 이제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새로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자랑하기 위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규모의 「국립박물관」도 마련했고, 「국립미술관」도 지었고, 지금 「예술의 전당」도 만들고 있다. 이들 공간이 앞으로 알차게 꾸며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친숙하게 자리잡을 수 있길 누구나 기대할 것이다. 문학의 경우에도 만일 이와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리작업이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문학박물관」이나 「문학자료관」 같은 것이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최초의 인쇄활자를 발명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애써 강조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인쇄문화·출판문화의 중요성을 소중히 알고 있는 문화국민으로 몇몇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편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미술품에 비하면, 한 권에 몇천원 밖에 안되는 시집·소설집·잡지 등은 그 한 편의 미술품값에 수만 권을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일에 뜻을 두지 않음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의식의 한계가 일제의 혹독한 탄압보다도, 6·25 전쟁의 참화보다도 더욱 심하게 우리 문화를 스스로 제자리걸음하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학관계의 자료 문헌을 수집 정리하는 작업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 언어의 꽃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문학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실태파악과
書誌적 정리작업이 선결과제이다.
또 소실된 자료의 발굴 복원과
현존하는 자료의 철저한
보완도 긴급하다.**

이지만, 소장자들을 널리 찾고, 공공 도서관의 보관 실태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서로 보충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잡지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상업적인 출판사인 아세아문화사가 몇몇 소장자들의 도움으로 펴낸 「개화기잡지총서」는 자료의 발굴 복원만이 아니라 그 보급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인 예로 손꼽히고 있지만, 많은 영인본 출판업자들이 다투어 간행하고 있는 잡지 영인본은 대체로 결본을 보완하지 않고 무성의·무책임하게 만들어진 조악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잡지 가운데 「朝鮮之光」 「批判」 「三千里」 「朝鮮文學」 등도 결본이 많아서 앞으로 완결의 구비를 위한 보완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보존문제로 열람금지된 책 많아

이러한 자료의 보완작업만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보존 문제도 관심을 두지 않